

모든 문제 해결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창세기-

창세기 3:15, 마태복음 1:18-23

정운돈 목사님

오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지난번에, '마리아도 원죄가 있을 텐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나는 성경에 나온 내용은 다 믿는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목상을 해 본다.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큰 은혜가 됐던 내용들이 많았다. 그런 게 지금도 여러 가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지만 원죄가 있지 않다. 하와가 낳았으니, 하와의 원죄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남현 목사님이, 여자의 후손에게는 원죄가 없게 되는 과학적인 이유를 자기가 쓴 레포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었다. 약간 이해가 안 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수경재배(水耕栽培)다. 물이 있지만, 씨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씨에 의해서 콩이 됐건, 야채가 됐건 자란다. 마리아가 일종의 밭이라면,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오셨다. 하나님님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 아담의 죄의 유전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것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원죄, 지옥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관건은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하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성령충만의 힘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 지게 된다.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지만, 사단의 줄개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받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현장에서 하나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축복, 그 행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1) 창세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든지, 그 모두에게 중요한 책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의 복음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려면 도움이 되는데,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자세로 읽으면 된다.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읽는 게 좋다. 이게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꼭 읽다보면, 다른 책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의 영을 깨운다. '세상에 이런 글도 있을까' 하고 감동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런 것이 열 번, 스무 번 반복되면,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기를 바란다. 나는 무리해서 성경을 통으로 설교를 한다.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50장을 몇 번씩 읽다와 힘들었다. (웃음) 짧은 성경은 여러 번 읽어도 은혜가 되는 데 창세기는 너무 길어서. (웃음) 그렇지만 나는 설교해야 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한다. 시간이 길어질까 해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과 같더라고 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향불이 떨어지기 전에 굉장히 옥도였었다.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오랫동안 소돔과 고모라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많은 비판하는 학자들이 이것이 성경이 틀렸다는 근거라고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기쁨이 와서 사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견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고고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베퍼야 사람들처럼,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고 보아야 한다. 오늘 중도동부 메시지에서서도 말했다. 진리를 찾아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성공 같은 것을 쫓아가면 불행하다. 공허, 흑암, 혼돈에 빠진다.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말은 다 거짓이다. 속는 것이다. 끝까지 가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발견하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다.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날이 전부 주일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교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안식일이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그 3오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맞구나.' 그래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한다.

(2)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세기를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창세기와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는 초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필 하스나 했더니 토론을 한다고 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을 선택했다고 했다. 다 토의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2등을 했다. 유일하게 2등을 했다. 다른 것들은 반대로 2등 하는데. (웃음) 다 됐다. 학교생활에 성공했다고 하고 칭찬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머지가 다 온다. 아들이 창조론, 진화론을 설명했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뎀빙이 돼서 쫓아왔다고 한다. 그 친구의 진로의 목표가 지질학자인데, 지구가 창조된 것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꼭 해 줬다는 것이다. 내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책을 아들에게 줬는데, 이 책을 끝까지 읽었다. 유일하게 다 읽은 책이다. (웃음) '너는 인생 성공이다' 하고 칭찬해 줬다. 아이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하고 말했다고 한다. 램넛들에게는 제왕, 영적인 문제, 운명 사주팔자 같은 것을 말하면 이해를 못 한다. 학교에서 창조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창세기, 성경을 믿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보이지 않게 깔려있다. 그러니까 타락해도 된다. 성공을 위해서 살고 돈, 외모를 위해서 산다. 창세기 3장, 성공만을 위해서 나, 나, 나 하고 너무 찾는다. 창세기 6장 네피림, 11장 바벨탑, 성공만을 위해서 산다.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남는다. 그러니까 모든 램넛들이 그 쪽으로 간다. 윤리, 도덕, 기준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3)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지만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창조물을 두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다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 사람들은 빛이 있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우주 만물의 근원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램넛들에게 이런 진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도사님이 그러셨다. 제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힘들다고 한다. 특히 유치부에게 가르쳐주는 게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제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파자를 줬다가 뺏아버려라." (웃음) 이것이 제왕이다. 좋은 장난감을 줬다가 뺏아버리는 것이다. 램넛들은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세상적인 지식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 틀린 교육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 알려주지 않는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주만물이 에너지를, 전자로, 광자로 만들어졌다. 물리학은 진동하는 파동이 근원이라고 한다. 파동이 무엇인가?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리다. 이것이 빛이 되고, 빛이 모여서 물질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본적인 것을 깨닫게 될 때, 한 가지 한 가지 더 믿어지게 되고, 불가능한 것까지 현실하게 될 줄을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믿음이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4) 창세기는 역사책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발굴이 안 되었었다. 그런데 1800년대에 영국의 한 학자가 지하를 파다가 니느웨 성을 발견한 것이다. 영국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아수르, 그리스, 로마의 역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로마가 가장 가까운 과거인데, 발굴된 유물은 아수르가 가장 많다. 이유가 무엇인가? 니느웨 성이 홍수의 범람으로 그대로 잠겼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성경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피라미드가 있다. 어디를 가든지 홍수설화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선배가 한 분 있는데, 성내동 지하에서 목화를 찾았다. 설교를 하시면서 그 말을 하시더라. 다른 것을 다 믿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안 믿겠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대홍수가 일어나서 성내동이 다 잠겼다. 교회가 지하인데, 그래서 옥상에 앉아서 고백했다고 한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는 있었습니다." (웃음) 이것도 은혜다. 그렇게라도 깨닫는 것이 말이다. 지금은 출천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물에 안 잠기는 곳에서. (웃음)

(5) 특히 창세기만이 인간과 우주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인류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정확한 해답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성경이 아니면 고대 문화, 인류의 문화가 밝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성경에서 다 배워 놓고, 성경 때문에 다 찾아놓고, 그 고백을 안 할 뿐이다. 오늘은 창세기 안에 있는 네 사건과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첫 번째로, 창세기 전반부에는 네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 첫 번째가 창조에 대한 내용이다. 창세기처럼 인간과 우주와 만물에 대한 기록이 자체 하다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직 성경. 그것도 창세기에만 태초와 만물의 시작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성경 외에도 지구와 우주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은 신화적인 것으로, 깊이 탐구할 가치가 없는 저급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있는 타락에 대한 내용이다. 인간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30대 부부들은 거의 이혼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이혼, 재혼, 삼혼 사혼 계속 갈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 상담을 아무리 해도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먼저 부부사이를 깨뜨려 버렸던 것이다.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아내도 남편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 이렇게 해야 그 가정이 지켜진다. 남편도 남편이 오직 술, 오직 골프, 오직 돈, 오직 화투, 아내도 오직 화장, 오직 옷, 오직 날씬한 것.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있다. 왜 그런가? 창세기 3장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선악과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면 아빠도, 엄마도 선악과를 따먹고, 오직 돈 돈 돈 돈, 성공 성공 성공을 외친다. 실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오직 내 육신이 좋은 것. 재미있는 것을 찾는다. 그러다가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변도 불행해진다. 진짜 화나는 것이 있다.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그 주변은 점점 불행해진다. 그것은 전후파우를 못 보는 사람이다. 그것은 더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들이 미국에 갔다 와서 포름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다 좋다 나쁘다 하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것이다. 다 자기 중심이다. 다 자기 이익 중심이다. 희생할 것은 안하려고 떠밀고, 편한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다 똑같다고 했다. 정말 똑같구나 싶었다. 그래서 끝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 나를 죽이고 전체를 살리고, 나를 희생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한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이다. 나, 나, 나 하면 불행해진다. 약간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원인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을 몰라서 그렇다. 근원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 어떤 책, 어떤 대학, 어떤 교수도 근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해결책도 모른다. 인간이 왜 늙는지, 병드는지, 왜 죽는지, 왜 가정 문제, 사회 문제가 계속 증가하는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왜 제왕과 저주는 계속 일어나는지, 왜 자기 운명, 사주팔자는 이런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게 초복이다. 그러나 답을 모르면 자살해야 한다. 답을 모르니까 계속 불행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 원인과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인간에게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을, 사람들은 전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갔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가 많다고 진실하게 이야기한다. 당연하다.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겠는가. 내 정말로, 아이들이 나쁜 것이나 안 배우고, 상처라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학교 현장, 대학 현장이 그렇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가진 교육자가 나와야 하고, 정말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육을 행할 줄 아는 교육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램넛 때부터 체질을 요셉과 같은 체질이 되도록, 말씀운동 램넛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직 성경에만 해답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죄가 있다. 인간에게는 오만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나. 내가 <108번>라는 책을 썼는데, 108개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 또 수천 가지가 있다. 석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다. 깨달았다, 또 닦았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도 번뇌, 저것도 번뇌, 다 욕심이고 다 갈등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다. 그나마 그렇게 고백했던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이다. 단지 답을 몰랐을 뿐이다. 오만까지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 오만까지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역사하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대가가 없다.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죄상의 죄까지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해결된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이 문제 많은 세상,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교회 안도 똑같다. 성령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기운을 다르게 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게 된다. 옳다 그르다 하게 된다. 이변에 장로님이 오셔서 예비증직자들에게 메시지를 하셨다. 장로 회의를 가면 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는 말, 다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오로지 믿음으로 하시더라. 성령충만하면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은 노아의 대홍수다. 이 사건은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다. 1980년도 5월 18일에 세인트헬레나라는 화산이 폭발했다. 미국에 가면 그랜드캐니언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지질학자들은 그랜드캐니언이 수천만 년의 시간 속에서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물이 흐르고 땅이 퇴적되어서 쌓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창조과학자들은, ‘아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면서 독이 터지면서 그 골짜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부분 이 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안 믿는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셨다. 세인트헬레나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만년설이 녹으면서 노아의 홍수의 사태와 똑같이, 진흙이 내려오면서 골짜기가 만들어졌다. 규모는 작지만 그랜드캐니언과 똑같이 만들어졌다. 불과 수 년 만에.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4) 네 번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다. 이것은 심판 후에 인간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시대가, 노아가 살아있었을 때다. 최초의, 노아의 방주에 있던 자녀들은 살아있었을 때다. 무슨 말인가?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만들었다. 무슨 말인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우리 손자 대에 가서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믿음이 좋은가. 지난번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나. 어떤 교회를 갔더니, 열 명의 종직자들의 자녀가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대에 대홍수를 만났는데도 자녀들은 믿지 않는다. 여러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도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믿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반역한다. 네피림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우리 교회도 미래가 없게 된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2. 네 인물

창세기에는 네 인물에 대해서 나온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분들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었고,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2가지 주제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오히려 어떻게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우리들은 이 네 인물들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

(1)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우상의 가문이었고, 비겁하게도 자신의 부인을 두 번이나 팔아먹은 연약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남편들이 좀 부추하고 못했더라도, 여러분을 두 번 이상 팔아먹지 않는다면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혹시 남편들 중에서 팔아먹은 분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오직 믿음이라는 절대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믿음의 조상이었다. 믿음으로 교회를 떠나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냐만 땅으로 출발해서 갔다. 믿음으로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 여자의 후손을 믿었던 것이다.

(2) 두 번째 인물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음을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는 응답을 얻었다. 큰 문제가 없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평탄하게 믿는 자녀들이 있다. 그 자녀들은 그냥 쉽게 100배의 응답을 얻는다. 이삭 같은 믿음이다.

(3) 그런데 꼭 그런 자식만 있는가. 야곱 같은 자녀도 있다. 세 번째는 야곱이다. 야곱은 욕심이 많고 피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의 가치와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욕심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너무 잘 알았다. 여러분, 종직자 되실 분이나 모든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내가 성가대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야. 이젠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어.’ ‘내가 악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야.’ ‘나는 어린이부, 중고등부 교사를 할 거야. 이걸로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야.’ 만약 계산이 안 되면, 그런 계산이라도 하라. ‘내가 주일성수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야.’ 믿음이 없으면, ‘종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엄청난 응답이야. 천대의 응답을 받는 거야.’ 이런 욕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야곱은 성격은 안 좋았어도 진짜 것을 알았다. 운동장에 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1등은 한 사람 뿐이라고 했다. 세상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싸우면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절대 양보

하면 안 된다. 믿음의 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가치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세상 것은 그렇게 양보 안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데, 진짜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람이다. 영적인 엄청난 사람이다. 무엇인가를 못 본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통해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것이다. 한 번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나는 이번 집중신학원 강의를 꼭 들으면서, 장로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 ‘아, 저분은 목사님보다 더 낫다’ 싶은 분들이 있었다. 그런 종직자, 전도자의 간증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란다. 우리가 50주년이나 되었는데, 우리들이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변에 종직자 훈련을 받는 모든 분들이 그런 증인으로 서시게 될 줄 믿는다. 그 시작이,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했다. 야곱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욕심이 많았던 인간을 왜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싶었다. 그러나 보니까, 야곱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원리와 축복을 이해한 사람이었다. 팔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영적인 축복과 그 가치를 알았다는 말이다. 복음을 알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장자였지 않나. 영적인 것을 알았던 것이다.

(4) 네 번째는 요셉이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조상들이 알려준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꿈의 언약을 잊지 않았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은 가정과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 네 인물과 같은 축복과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그 네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여러분은 좋은 것만 고르고 골라서 우리 후대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과 미션을 전달드리겠다.

(1) 목사님께서 항상 강단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언약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나?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신학교를 다 나왔고, 성경을 많이 읽었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다락방 전도운동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성경을 안 읽는다. 아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본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 신앙성정조차도 다 안 읽어본 것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읽어주지 않나. 우리는 부모가 읽지 않으니, 자녀가 어찌 읽겠는가.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랩넛들이 스스로 읽게 되는 것이다. 나도 어머니, 아버지가 읽으라고 하지 않았었지만 청소년 때 성경을 다 읽었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그냥 혼자 성경을 읽었다. 3오늘이라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읽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읽이지더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한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결국 다 그 길을 가게 된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창세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절교할 때마다, 그 주간에 해당되는 성경을 읽어보라. 나도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성경을 수십 번 읽는다. 시간나는 대로 읽고 또 듣는다. 요즘은 유튜브로 다 나온다. 창세기가 길어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번 주간에 여러 번 읽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14배로 빠르게 성경을 읽어주는 영상이 있었다. 얼마나 빠르게 읽든지. 그런데 내용을 아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두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겠다. 해 보라.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런 미션을 드린다.

(2) 또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더욱 배우고 연구해 보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고 있지 않나. 진화론 때문에 혼란에 빠져있는 후대들에게 잘 설명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해 보시기 바란다. 지금은 자료가 참 많다. 우리 어릴 때와 다르다. 창조과학회라는 조직도 있다. 유튜브에는 김병현 박사 같은 분들의 강의를 잘 정리되어 있다. 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진화론도 증명할 수 없고, 창조론도 증명은 안 된다. 그러나 진화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깨부술 수 있는 내용은 된다.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야 한다. 조건을 똑같이 주면,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되어서 나오도록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오감으로 다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은 비과학이 아니다. 초과학이다. 우주 만물 창조를 실험실에서 지금 실험하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다. 그런데 진화론도 똑같다. 증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 쪽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들린 말을 주장했을 때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었다. “창조론이 과학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진화론도 진리가 아닌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틀렸다는 것과, 창조론도 똑같이 이론으로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 어느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 줬다.”

(3)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성문과, 이로 인해서 발생된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묵상해보시기를 바란다. 성문문제가 왜 생기는가. 경제문제, 전쟁문제, 네피림, 살인문제, 거짓말, 중독의 문제의 원인들을 모른다. 치료의 방법도 모른다. 오직 성경만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배워서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다락방이고, 전문교회이고, 지교회인 것이다.

(4) 네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한 네 사람의 믿음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이분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한다.

(5)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란다.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는지, 왜 그분만이 유일하게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한 주간에 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실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언약을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더 귀하게 붙잡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보다 요셉이 더 뛰어나게 되었고 실수로 가지 않게 되었단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가만 갈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